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예방교육 강의안(예제)

□ 강의계획(안)

강의계획(안)			
과목명	성인지적 인권 통합교육	차시(시간)	1차시(40분)
대상	초등학교 5학년		
학습 목표	- 장난과 폭력, 친밀감의 표현을 구분할 수 있다. - 디지털 성폭력이 무엇인지 알고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디지털 성폭력의 대응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단계	주요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자료
도입 (2분)	강사소개 - 강사소개 및 학습자와 상호소개 수업안내 - 차시 및 학습목표 소개, 수업진행 안내 - 활동목표: 인정과 훼손의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탐색해보고, 인정받았을 때의 감정이 존중과 연결됨을 알아본다.	강의식	PPT
전개1 (8분)	‘존중이해’활동지 - 자신을 긍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3개 적어보세요. - 자신이 제시한 단어 중 한 개를 골라 삭제해 봅시다. - 나의 긍정단어를 삭제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각자 이야기 해 보세요. - 이 경험을 통해 존중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활동정리 -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존엄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것이 인권과 평등과 연결됨을 알려준다.	토론	
전개2 (20분)	- 활동목표: 모둠별로 사례를 중심으로 토의하며, 폭력과 디지털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 모듬토의 내용 - A와 C의 어떤 행동이 B를 화나게 한 걸까요? - A와 C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B에게 돌리는데 주변적인 원인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사례안의 각 인물의 행동에서 문제점을 찾아보세요. -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변화하여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A, B, C, 그 외 상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세요.) - 만일 모르는 사람이 사진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 보고 이야기 해 보세요.	모듬별 토의활동	PPT 사례 질문지

	• 활동정리 - 사례를 통해 A, B, C의 행동을 정리하고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제시한다.		
정리 (10분)	• 핵심개념 정리 - 존엄성 → 인권 → 성인권 - 성평등 → 성고정관념 → 성차별 → 성인지감수성 → 성적대상화 - 장난과 폭력, 친밀감의 표현 → 디지털성폭력(촬영, 유포, 소유) - 성폭력대응방법, 실천방안 • 활동소감 발표 및 마무리 - 1~2명 정도 수업 후 느낀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거나 수업 후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발표하고 앞으로 어떠한 실천을 할 것인지 이야기하며 마무리한다.	강의 발표	

□ 디지털성폭력 사례(안)

- A는 B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서로 친한 사이 (관계)
- A는 자신의 사진을 B에게 보내고, B에게도 사진을 보내달라고 함.
- B는 사진을 보내기 싫다고 했는데 A는 지속적으로 보내달라고 함. (강요)
- B는 친한 A의 말을 거절할 수 없어 사진을 보냄. (순응)
- A는 다른 친구 C에게 너에게만 보여준다는 말을 하며 사진을 보여주었고, 자신이 B와 사귀는 사이라고 말함. (유포)
- C는 주변 친구들에게 A와 B가 사귀다고 말을 함.(소문)
- B는 이 사실을 알고 A와 C에게 화를 냈음. A와 C는 자신이 뭘 잘못했냐며 친구들에게 B의 성격이 이상하다고 소문을 냈음.(2차가해)
- B는 A와 친하다는 이유로 사진요청을 거절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지만, 자신이 직접 사진을 보낸 것이 문제의 원인이며 잘못이라고 생각함.(피해자의 자책)
- 그리고 A를 믿고 사진을 보냈는데, 오히려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해받는 것이 억울함. (피해자의 고통)

※ 전반적으로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문장 재구성

〈기타 사례〉

장난일까, 범죄일까?

신영이네 반 이야기입니다.

“장난이야. 장난도 못 받아줘?”

“내가 싫다고 했는데, 네가 장난이라고 하면 장난이 되는 거야?”

언성이 높아집니다. 이 친구들, 왜 이러는 걸까요?

신영이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를 좋아합니다. 친구들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친구들은 웃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브이를 만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무표정했어요. 영호는 사진을 찍지 말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웃으면서, 다음엔 “나 사진 찍히는 거 싫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영이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친구가 신영이의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사진첩에 영호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무표정한 모습, 웃는 모습도 있고 화내는 모습, 고개를 젓는 모습, 옆드려 자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왜 영호 사진이 이렇게 많아?”

신영이는 우물쭈물했어요. 도도가 말했어요.

“영호가 화장하고 다녀서 그래.”

그 말을 듣고 영호는 화를 냈어요.

“신영이가 잘못했는데 왜 내 탓을 해?”

“학생이 화장하고 다니는 게 문제지. 학생이 화장하니까 신기해서 찍은 거잖아.”

“신영이가 찍은 건데 왜 내 립글로스 탓을 하는 거야?”

반이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께 이 상황을 여쭙어보자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요즘 십 대들은 문자보다 동영상과 이미지에 더 익숙해 갈등도 많이 일어나요. 장난으로 생각하며 행동한 게 단순한 장난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격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설명과 함께 선생님은 ‘몰카’라고 말하는 사진 촬영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촬영이란 의미에서 ‘도촬’, 혹은 불법 촬영이라고 불린다는 것도 알려 주셨어요. 요즘 온라인에 불법 촬영한 사진을 게시해 조회 수를 올리면서 자신감을 얻는 학생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점점 자극적인 사진을 찍어 올리게 된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례도 덧붙이고요. 한 남자 초등학생은 잠든 누나의 발목과 손목을 테이프로 묶고, 누나를 깨워 당황해하는 모습을 비추고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달라.’고 말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어느 십 대 남성은 반바지를 입은 어린 여동생의 하반신을 비춘 후 동생의 배, 허벅지, 다리 등을 때리는 영상을 게시했는데, 채팅 창엔 ‘다리 만지네 부러워ㅠㅠ’ 등 성희롱 발언이 올라왔다고 해요.(여성신문,

2018.5.21). 이런 일들은 절대로 장난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요.

이처럼 디지털 성폭력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SNS에 불법 촬영물을 올리는 일은 오프라인의 성범죄에 비하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2017년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강화,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차단과 유포 방지, 행정 기관·공공 기관과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시 카메라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의 위험성·처벌 법규 등을 집중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이므로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처음부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고, 또 동의 없이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려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영이는 영호의 사진을 지웠어요.

“저는 그냥 장난으로 한 것뿐인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처음부터 이런 장난은 안 해야겠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선생님께 다시 여쭙었어요.

“신영이가 다른 친구보다 영호를 많이 찍은 건, 화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영호 잘못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일은 영호가 립글로스를 발랐거나 안 발랐거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영호의 립글로스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변신원의 성평등 수업에 개제(미간행본)

함께 생각해 볼 질문

- 신영이는 이번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 영호는 왜 화를 낸 걸까요?
- 도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 신영이네 반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